



# 전주매일



19일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 열린 카본 코리아 2025 개막식에서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블레이드 클러스터 조성 위한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 해상풍력 블레이드 국산화

# 전북 해상풍력 산업 ‘탄력’

외산 의존도 낮추고 기술 자립... 통합공급망·클러스터 조성 목표

전북자치도·군산시·에너지 분야 10개 기업·연구기관, 협약 체결

전북 지역 내 해역에서 친환경 풍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해상풍력 산업 인프라 구축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CARBON KOREA 2025’ 개막식에서 해상풍력 블레이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상풍력 블레이드는 탄소섬유 복합 소재를 핵심 원료로 사용하는 만큼, 이번 협약은 전북이 보유한 탄소소재 기술력과 해상풍력 산업을 연결하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도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와 군산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연계해 탄소복합소재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전북도는 이날 개막식에서 경북과 함께 공동 후원기관으로 나서며, 도내 7개 기업과 전북관을 운영해 지역 탄소산업의 기술력을 알렸다. 협약에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휴먼컴퍼지트, 신성소재, 삼우기업, HS효성첨단소재, 도레이첨단소재, 국도화학, 한국재료

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등 10개 기업·연구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기업들은 △국산 블레이드 표준·공용화 모델 개발 △실증·양산·보급 기반의 공급망 인프라 및 생산설비 확충 △배후항만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 등 해상풍력 블레이드 산업의 전주기적 생태계를 마련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블레이드는 바람으로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날개로, 해상풍력 발전기의 성능과 경제성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다. 해상풍력 블레이드 클러스터는 국내 해상 풍력단지 보급과 수출을 위한 블레이드 표준화 및 공용화 연구개발(R&D)과 차세대 초대형급(20MW) 블레이드 인증시험 인프라,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품질 검증 시스템 등을 갖추게 된다.

이번 협약은 군산 지역에 대형 블레이드 관련 기관·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산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자

립과 시장 확대,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등 통합 공급망 및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도는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의 도내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관련 기업 육성 및 핵심 인력 양성 등 인프라 조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신시장 개척과 함께 도내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 협회가 한 마음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인 블레이드 생태계 조성에 나서면서, 전북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고창, 부안 해역에 총 14조7,000억원을 투입해 2.4G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군산에는 1.8GW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도시 선언”

‘도백 도전’ 민주 이원택 의원, 미래 발전 전략 발표... “광역 단위 선도지역 지정 검토  
면 단위 인구감소지역까지 포함해야... 이 대통령 국정과제, 성공 정착에 역량 쏟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군산·김제·부안을)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삼중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북을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북의 미래 발전 전략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로봇과 AI가 생산의 중심이 되면서 전통적 일자리 개념이 약화되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이농원, 목욕탕, 카페, 슈퍼마켓 등이 사라져 시장 기능이 붕괴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업 소득이 낮은 조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전북을 선도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북을 광역 단위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며, 인구 감소 지역뿐 아니라 면 단위 인구 감소 지역까지 포함시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19일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전북의 미래 발전 전략’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겠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정부 공모에서 전북은 최종적으로 순창군만 선정됐으나, 무주군은 정부 공모와 별도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과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정부가 선정한 7곳 외에 5개 지역을 추가로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고,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농식품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제안한 바 있다.

그 결과 관련 예산 1,706억9,000만원

이 증액돼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에 상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당 지도부 및 정부 관계자와 협력해 반드시 5개 지역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며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농어촌 내발적 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전북이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희정 기자

## 도,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229명·법인 167개... 체납액은 총 130억59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96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229명, 법인 167개로 구성되며, 체납액은 △개인 75억9,200만원 △법인 54억6,400만원 등 총 130억5,900만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81명의 명단공개 후보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멸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멸자료를 제출한 85명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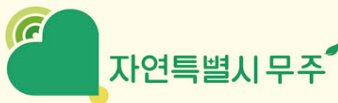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이 기재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가 함께 포함된다. 공개된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방세정보·정보공개·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지방세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법인을 대

상으로 이루어진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향후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해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명단공개 조치 이후 자진 납부와 체납 정리로 징수된 금액은 현재까지 13억3,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치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뢰 하락과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하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라며 “체납업체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피해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별이 총총! 반딧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깨끗한 자연에서 정성으로 키운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은 품목별 작목반들과 농가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사이버장터를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무주반딧불사이버장터

검색

이용문의

063)320-2770  
063)322-0278

전 품목 무료택배

www.mj1614.com